

다큐멘터리는 관심과 질문이다 김형준 PD

수학이라니! 남극의 펭귄과 북극의 곰이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는 자연 다큐멘터리 전성시대에 이 무슨 생뚱맞은 수학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영어 울렁증보다 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수학 울렁증이다. 그런데 EBS에서 수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기대 이상으로 '재밌다', '신선하다'는 호평이 잇따랐다. 수학과 문명의 키워드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작품은 이달 초 다시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EBS 다큐를
만드는 사람들

글
강병길

사진
(문명과 수학)
제작팀



EBS
2012.
FEBRUARY



편견과 선입견에 도전하는 김형준 PD

도곡동 EBS 사옥 편집실,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을 제작한 김형준 PD와 마주 앉자마자 가장 치명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학창시절에 수학은 잘 하셨어요?” 그냥 다른 걸 만들지, 수학성적도 신통치 않으셨을 것 같은 분이 왜 수학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냐는 무언의 항의가 담긴 물음이다.

“수학 싫어했죠.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예상대로다. 심지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그럼 대체 왜?

“선입견을 깨고 싶었죠. 수학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를 돌려놓고 싶었어요. ‘수학이 어렵고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계 밀바닥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일리 있는 설명이다.

세상 언어의 절반은 수학, 수학을 모르면 세계에 대한 이해는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궁금증이 말끔히 가시지는 않는다. 하필 수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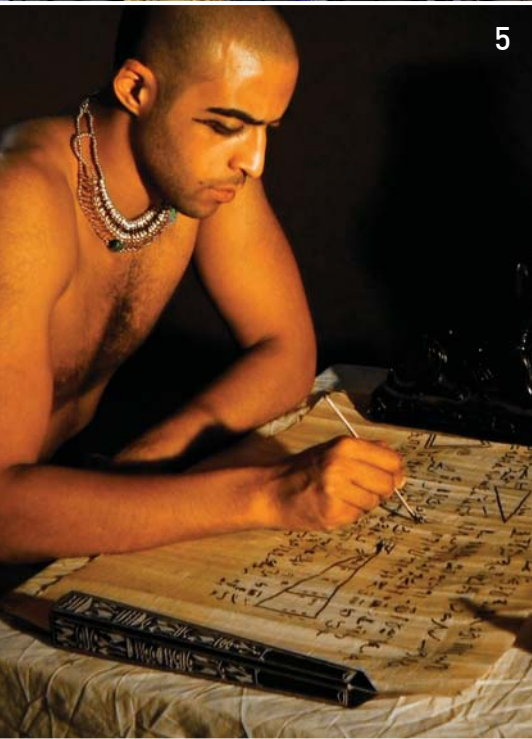
“이번이 제가 제작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예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다큐멘터리도 수학과 관련한 작품이었는데, 수리생물학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생물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건데, 가령 동물의 무늬 같은 것 있잖아요. 호랑이는 줄무늬고 치타는 점무늬고... 이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건데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았죠. 당시 아프리카까지 건너 가서 두 편을 찍어왔어요. 그 작품 이후로 수학에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 수학책을 꾸준히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때 제가 했던 다큐멘터리는 수학을 정면으로 다뤘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학을 제대로 다루고 싶다고 줄곧 궁리해왔어요.”

- 1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 건설현장
- 2 프리젠티어를 맡은 연극배우 남명렬
- 3 룩소르 노동자 마을 촬영현장



4

- 4 인도 갠지스강 촬영현장
- 5 아메스파피루스를 집필중인 이집트 서기관 아메스
- 6 사모스섬의 피타고라스 동상
- 7 논쟁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 8 뉴턴의 프린키피아 초판원



5

‘문명과 수학’의 못다 한 이야기

〈문명과 수학〉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작품은 문명사와 수학사를 한데 엮어 설명한다. 내쳐 이러한 접근법을 택한 이유까지 호기심이 치민다. “수학이라는 게 문명이나 문화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온 학문이에요. 수학이 문명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기도 하고 반대로 문명과 문화가 수학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식이었죠. 수학은 따로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고 문명과 문화는 저쪽으로 가고 한 점 교류 없이 발전해온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화두이자 질문이고 답이었어요. 수학을 사람과의 관계와 떨어뜨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문명사를 좇아서 오게 되었죠.” 거기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주요 시청자층이 수학을 잘 모르거나 싫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고민이나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수학을 조금 덜 무서워하고 재미있어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골몰하기 시작했죠.”

‘문명과 수학’은 기획만 1년, 촬영에 1년 반이 소요되었다. 3500년 된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부터 뉴턴의 ‘프린키피아’까지, 화면 구석구석 생생한 사료들로 넘쳐난다. 이야기 곳곳에는 이집트, 영국, 그리스, 인도 등의 역사적 장소에서 현지 배우들을 기용해 당대의 상황을 재연했다. 스케일이 방대했던 만큼 어려움도 많았을 터, 고충은 없었느냐고 묻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라는 다소 맥 빠지는 대답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저 듣고 보니, 지나치게 겸손한 건 아닌가 슬며시 의문이 든다.

사전준비를 위해 전 스태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관련 대중서를 독파한 것은 기본, 이집트에서는 내리찍는 사하라의 맹벌레 못이겨 파업을 선언한 현지 배우들과 즉석 협상을 벌여야 했고, 제스민 혁명으로 한밤중 울리는 총성에 다음날 촬영을 밤새도록 걱정해야 했다. 그리스에서는 재정위기로 연일 심각한 시위가 벌어지는 광장 한복판에서 고대 그리스 복장을 입은 배우들과 촬영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은근히 강심장인 김형준 PD는 “별로 위험하지 않았다.”라고 덤덤하게 말한다.

사람, 나아가 세상과 호흡하는 다큐멘터리의 본질

올해로 벌써 16년차, 김형준 PD는 1997년에 EBS에 입사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퀴즈 프로그램과 〈EBS 스페이스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해왔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다큐멘터리를 향한 갈증이 심해졌을까. 그는 왜 ‘다큐멘터리’란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수학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그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례로 직접 강의하는 시청각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다큐멘터리가 다른 방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EBS
2012.
FEBRUARY



미적분을 발견한 수학자 아이작 뉴턴



6



7



8

형식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고 행동도 따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야 서점에 가서 수학책 한 권이라도 더 보게 되고요. 깊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사회가 풍족해지는 건데 우리는 국민소득에 비해 그런 일에 너무 각박하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었죠.”

김형준 PD에게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와의 대화이다. 제작자의 의도를 압축해 전달하고 시청자의 반응을 몸으로 느끼는 것. 그럼으로써 소통을 만들어가는 것. 그가 예찬하는 다큐멘터리의 매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큐멘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가장 빠른 도구예요. 마치 PD나 작가가 편집기 너머에 시청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시청자들의 리액션도 직접적으로 받고,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의 매력이죠.”

김형준 PD에게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자연과학’을 소개하는 도구이다.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를 보여준다. 그에게 다큐멘터리는 세상의 근원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시청자들을 변화시키는 형식이기도 하다. 수학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려 수학자들의 시도를 담아낸 이번 작품이 그렇고, 물리학을 통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

시청자들을 한 번 쯤 더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것. 김형준 PD에게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파고드는 ‘질문’이다.

다큐프라임 〈문명과 수학〉 2월 1일(수), 6일(월), 7일(화) 21:50~22:40